

쾌락과 혁명: 미얀마 청년 활동가의 취향과 정치운동*

이상국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태국 국경도시 매솟에서 망명 생활을 지속하는 미얀마 청년 시민불복종운동 참여자(CDMer)를 사례로 쿠데타 이후 민주화 운동을 고통·희생 중심 서사로만 이해해온 관점을 재검토한다. 쿠데타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뿐 아니라 민주화 시기 체화된 자유·문화·취향의 감각 세계를 파괴했다. 망명 과정과 정착 이후의 삶에서 취향은 단순한 소비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정동을 조율하고 일상을 땀질하며 혁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생활의 기술로 작동한다. 취향 실천은 개인적 회복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윤리와 공동체적 상호돌봄으로 확장되며, 기부·고용·모금 등 혁명 지원의 실천과도 결합한다. CDMer에게 쾌락과 취향은 혁명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망명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삶과 정치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혁명의 리듬을 유지시키는 일상적 기반이다.

주제어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CDM), 망명, 매솟, 취향, 쾌락(즐거움), 정동, 일상, 땀질, 공동체

“이제 혁명 이론은 투쟁을 미화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이다”(Gilman-Oplasky, 2012: 7).

I. 서론

“활동가에게도 만족, 취향, 행복이 중요해요. (...)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원해주세요.”

이 말은 2024년 1월 27일, 매솟을 방문한 치앙마이대학교 현지조사단 앞에서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에 참여한 여성 청년 활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7902).

동가(CDMer) 메이수¹가 한 호소였다.² 메이수의 발언은 이른바 88세대³에서 두드러졌던 고통과 희생 중심의 서사와 구별되는 감각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민주화운동을 고통의 감내나 자기희생의 실천으로만 말하지 않고, 취향, 만족, 행복과 같은 일상적 감각의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필자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과 해석상의 긴장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망명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그녀의 처지는 외면하기 어려운 윤리적 요청으로 다가왔다.

88세대 역시 인간으로서 당연히 쾌락⁴을 추구했을 것이지만, 당대의 분위기가 이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반군부 투쟁이라는 대의가 개인의 쾌락 추구를 감춰버린 것이다. 그러나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남짓 이어진 미얀마 민주화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른바 ‘젠지(GenZ)’⁵는 그 시절 자유를 만끽하며 취향을 체화했으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그토록 미운 이유 중 하나도 하루아침에 쿠데타를 일으켜 그들의 취향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숫과 치앙마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를 오히려 정치활동의 에너지이자 그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

쾌락과 취향이 쿠데타 이후 민주화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예컨대 암폰(Amporn, 2023)은 CDMer를 다루면서 여전히 그들이 혁명을 위해서 자신의 웰빙을 희생한다는 내러티브를 중심에 두었다. 암폰은 또한 공무원들이 시민불복종운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불복종을 아렌트(2006)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논의와 연결하며 그들의 양심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필자는 충분히 그 점에 공감하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DMer도 욕구를 가진 하나의

¹ 이 논문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² 필자는 2024년에 치앙마이대학교 사회개발학과 방문학자로 체류하던 중 그 조사단에 합류했다.

³ 88세대는 1988년 8월 8일 발생한 전국적 민주화 항쟁(이른바 ‘8888 항쟁’)을 주도한 미얀마의 학생·청년 중심 민주화운동 세대를 가리킨다.

⁴ 영어로는 ‘pleasure’로 옮길 수 있다. 이 글에서 문맥에 따라 ‘즐거움’을 쓰기도 할 것이다.

⁵ ‘Generation Z’의 줄임말로 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태국 매솟으로 망명한 청년 CDMer들의 일상 경험을 분석하면서, 취향과 쾌락의 실천이 어떻게 혁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지 탐구한다.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와 미얀마 민주화운동 서사가 희생, 헌신, 고통, 저항의 윤리를 중심으로 혁명을 이해해왔다면, 본 연구는 커피, 영화, 방 꾸미기, 놀이, 음식 취향과 같은 감각적·정동적 실천이 망명 상황 속에서 파괴된 삶을 ‘땀질’하고 공동체를 재구성하며 운동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토대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쾌락과 취향을 혁명과 대립하는 사적 영역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일상적·정동적 정치의 실천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24년 1월, 2025년 1~2월, 7~8월 중 태국 국경도시 매솟에서 수행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20대 중후반의 CDMer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이주민 집거지, 공동 주거 공간, 활동 단체 사무실, 커피숍 등을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특히 본 연구는 취향, 정동, 일상 감각과 같은 미시적 경험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설문조사나 문헌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세계의 리듬과 감정의 결을 민족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러 CDMer들이 즐겨 찾는 ‘팬시한’ 커피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소비 실천과 감각적 경험, 공간 활용 방식, 상호작용 양식을 관찰했다. 또한 인터뷰 자료와 현장 메모를 바탕으로, 취향과 쾌락의 실천이 어떻게 망명 일상을 ‘땀질’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혁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지 살펴보았다.

II. 쾌락과 혁명: 개인을 경유하여 공동체로 향하는 행동주의

쾌락과 혁명이라는 주제는 고전적인 주제로서 영화와 소설, 르포르타주에서는 익숙하다. 예컨대 체코 혁명을 다룬 밀란 쿤데라(2018)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광주 5·18을 배경으로 한 장선우(1996)의 <꽃잎>은 성적 쾌락과 정치적 현실을 교차시켰다. 헤밍웨이(2012)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조지

오웰(2001)의 『카탈로니아 찬가』 역시 전쟁 속에서도 누그러지지 않는 커피의 매혹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혁명과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감각과 욕망, 기쁨의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쾌락은 철학사에서도 오랫동안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스티븐 그린블랫(2013)은 『1417년, 근대의 탄생(The Swer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이라는 책에서 고전시대 철학 전통인 쾌락 사상이 중세를 거쳐 오늘날 근대 세계관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혔다. 고대 로마 철학자 루크레티우스(2012)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된 사건이 근대 세계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사건이 고통과 두려움에 지배되던 중세의 질서를 비틀어내면서 (swerve), 쾌락과 자유,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를 다시 상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고 그린블랫은 평가한다. 이는 단순한 철학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전복시키는 미학적·윤리적 혁명이었다. 오늘날 미얀마의 여성 CDMer가 말하는 “커피를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말은 그 책에서 언급한 작은 ‘비틀림’처럼, 혁명이라는 대의 속에서 쉽게 지워지기 쉬운 인간의 욕망과 기쁨, 쾌락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들의 주장은 단지 기존의 고통 중심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쾌락을 정치적 실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개인의 쾌락 추구는 자유론적 사유와도 접점을 갖는다. 존 스튜어트 밀(2018)은 『자유론』에서 “자기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36)라고 말하며 개별성과 자기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개인의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최악의 독재”(138)라고 밀은 경고한다. 밀의 이러한 논의는 자유를 단지 정치적 권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과 취향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의 문제로 이해하게 해준다. 미얀마의 청년 활동가들에게 민주화 시기는 바로 이러한 자유와 개별성의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었다. 따라서 2021년 군부 쿠데타는 단지 정치 권력의 장악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만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었던 세계 자체를 파괴한 사건이었다.

쾌락에 대한 논의는 에로틱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과 맞물리며 특히 여성의 에로틱이 주목을 받아왔다. 오드리 로드(Audre

Lorde, 1978)는 여성 에로틱이 갖는 해방과 자유의 가능성을 설파했고,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로드에게 바탕을 두고서 그 논의를 확장했다. 쾌락이 단지 성적 욕망을 넘어서는 정신적·감정적·관계적 차원의 감각이라는 점에서, 에로스는 단순한 관능의 코드가 아니다. 에스더 페렐(Esther Perel, 2019)은 ‘에로틱 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에로스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놀이와 상상력, 자기표현의 힘으로 다시 정의한다. 쾌락은 살아 있음의 감각이며, 관계 속에서의 열림이다. 마리아 포포바(Maria Popova, 2023)는 오드리 로드를 해석하며 “에로스는 기쁨에 대한 두려움 없는 능력의 뿌리 깊은 열림”이라고 썼다. 에로스는 카오스에서 태어난 최초의 힘이며, 그 혼돈 속에서 세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욕망의 창조력이다.

기쁨의 에너지는 혁명의 차원으로 연결된다. 지젤 라 폼프-무어(Giselle La Pompe-Moore, 2025)는 “쾌락이 혁명에 필요하다(Pleasure is Needed for a Revolution)”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감각을 제안했다. 고통만으로는 혁명이 지속될 수 없고, 기쁨과 쾌락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유는 에이드리언 머리 브라운(Adrienne Maree Brown, 2019)의 『쾌락 행동주의: 기쁨의 정치학(Pleasure Activism: The Politics of Feeling Good)』과 연결된다. 브라운은 쾌락 행동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3).

쾌락(pleasure)이란 만족과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행복한 감정이다. 행동주의(activism)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갖고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환경적 개혁이나 현상 유지를 촉진하거나 저지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려는 실천을 뜻한다. 쾌락 행동주의란 억압과 지배가 남긴 영향, 환상, 제약으로부터 온전하고, 행복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찾기 위해 수행하는 실천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저항이고, 쾌락이 단지 운동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운동의 본질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브라운은 주장한다. 브라운(2019: 271)은 잉그리드 라플러(Ingrid LaFleur)의 말, 곧 “억압받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쁨을 재배치하는 것 자체가 저항”(271)임을 인용하며, 억압된 쾌락을 되찾는 것이 곧 정치적 무대 위로의 복귀임을 강조한다. 이때 쾌락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며, 저항의 리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쾌락 행동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CDMer들의 취향과 감각적 실천을 단순한 사적 소비가 아니라 망명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파괴된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땀질(bricolage)’의 실천으로 이해한다. 레비-스트로스(1996)가 말한 땀질이 주어진 재료와 파편들을 조합하여 세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면, CDMer들에게 커피를 마시고, 방을 꾸미고, 영화를 보고, 함께 식사하고 놀이를 나누는 행위 역시 망명 생활의 균열을 수선하고 삶의 리듬을 복구하는 ‘땀질’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향의 실천은 개인을 고립시키기보다 오히려 공동체를 엮어내고 혁명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정동적 토대가 된다.

그러나 모든 쾌락이 해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브라운의 책 여러 지점에서 이러한 쾌락이 공동체성과 윤리적 책임과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쾌락 행동주의는 단순한 쾌감 추구가 아니라 깊은 자기 연결, 공동체적 정서, 그리고 구조적 전복을 위한 감각적 실천을 포함한다. 이 점에서 억압받는 자로서 미얀마 여성 CDMer의 쾌락 추구는 자기 회복과 저항의 리듬 속에서 깊은 공동체적 정서에 기반을 두며 정치적 무대 위로 복귀하는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쾌락과 정치, 공동체성은 팩터(Pachter, 1971)의 뉴레프트(New Left)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 팩터는 마셜 버만(Marshall Berman, 1970)의 저서 『진정성의 정치: 급진적 개인주의와 근대 사회의 등장(The Politics of Authenticity: Radical Individualism and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을 중심으로 뉴레프트(New Left) 운동의 철학적 기반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그는 뉴레프트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쾌락과 사랑을 개인의 진정성(authenticity) 추구,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이름으로만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히틀러조차도 ‘자기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쾌락은 반드시 윤리적 책임,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팩터(1971: 122)는 주장한다.

결국 쾌락은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정치적이고 또한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여 재구성해 나가는 기억의 정치와도 맞닿아 있다. 예컨대 니토 발디비소(Nieto-Valdivieso, 2017)는

콜롬비아 여성 게릴라 전사들의 기억 속에서 기쁨과 웃음, 쾌락이 중요한 테마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쾌락은 단지 전장의 휴식이 아니라, 살아 있음과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회복하는 방식이었다. 필자가 만난 여성 CDMer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망명길과 정글에서 맛보았던 음식, 보았던 풍경, 어울렸던 공동체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활동가에게도 만족, 취향, 행복이 중요하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쾌락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공동체를 위한 활동가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작업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III. 파괴된 취향과 망명

태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청년 활동가들에게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쿠데타는 난데없는 날벼락이었다. 이들은 2011년부터 그때까지 10년간 이어진 미얀마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학창시절과 청(少)년기를 보내며 자유를 만끽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만의 삶의 감각을 키워나갔다. 특히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2015년 집권한 이후 미얀마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중산층 청년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와 소비 취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해외 음악과 영화, 세련된 카페 문화,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는 라이프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능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파괴된 취향’은 특정 소비문화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구성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던 삶의 조건 자체가 쿠데타 이후 붕괴되었음을 가리킨다.

메이수는 양곤의 중산층 가족 출신으로 할아버지대에서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기에 인도로부터 미얀마로 옮겨온 이주민 후세대. 메이수는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당연히 자기만의 번듯하고 안온한 방을 갖고 있었다. 그 방에는 안락한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방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메이수의 취미였다. 자기 집에서나 양곤의 예쁜 카페에서 맛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것도 메이수의

취향으로 자리 잡는다. 한국 영화와 음악 등 이른바 한류도 즐기며 일상을 살아갔다. 메이수는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그 전공을 살려 건설부 도시계획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대학원에서 개발학 석사과정도 밟고 있었다.

그렇게 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나 며칠 지나서 메이수는 동료들과 함께 거리 투쟁에 나서게 된다. 공무원, 의사, 은행원, 철도 노동자 등이 국가의 시스템을 멈춤으로써 군사정권의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메이수가 속한 Gen Z는 SNS와 글로벌 민주주의 담론을 활용해 리더 없는 수평적 운동을 전개했다(Jordt et al., 2021). 여성들은 생리대와 속옷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가부장적 군부 문화를 조롱하고 전복하며 민주화 운동과 페미니스트 혁명을 결합하려 했다(Marlar, 2023). 해외에 거주한 미얀마인들도 온라인 홍보 활동, 기부, 헌혈 등의 방식으로 동참한다(이은정, 2022; 202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메이수와 동료들은 몇 달간 투쟁의 효능감을 맛보았으나 군부의 진압이 거세고 잔인해지자 도피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지하 투쟁을 이어가던 메이수는 동료 활동가 나잉(남성)과 함께 태국으로 망명하기로 했다. 그들은 양곤에서 여정을 출발하여 태국 쪽 국경에 이르렀다. 그들 앞에는 도나(Dawna)산맥이 놓여 있었다. 그 산을 넘어야 해방구, 곧 카렌족 무장세력인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 산하의 카렌민족해방군(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메이수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도나산맥을 넘을 때 마치 한국 영화 〈택시운전사〉를 그대로 재연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택시 기사를 믿고서 국경 근처까지 왔어요. 도나산맥을 통과할 때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행복한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거기에서 먹었던 따뜻한 컵라면의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국경에 도착한 뒤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넜고, 미리 연락한 사람이 와서 픽업하여 저희를 매스로 데려다주었어요. 그날이 2022년 12월 31일이었어요.

메이수의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한 망명 과정조차 단순한 고통의 기억으로만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풍경과 음식의 감각,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 망명의 경험을 다시 의미화하며, 그러한 감각적 기억은 이후 혁명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동적 자원이 된다.

메이수와 그의 동료인 나잉은 미얀마 국경지대의 정글에서 지내지 않고 곧바로 태국으로 들어왔지만,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 활동 등을 하다가 매솟으로 들어온 CDMer들도 있다. 헤인(남성)이 그에 해당됐다.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헤인은 만달레이 의과대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의대생으로서 앞길을 보장받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저항 운동에 나섰고 KNU 관할 정글에서 8개월 동안 지내며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미얀마 군부가 활동 지역을 공격하자 태국과 국경을 이루는 머이(Moei)강 주변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국내실향민) 캠프로 옮겨와 두 달 동안 지냈다. 그곳마저 군부의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지자 수영으로 강을 건너 태국에 들어왔다.

카렌주 파안에서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아웅민(남성) 역시 수개월 동안 정글에서 지내다 매솟으로 넘어왔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깊은 산속에서 공무 여행 중이었던 아웅민은 집에 돌아왔을 때야 그 소식을 알게 됐다. 무엇을 할지 모르다가 2월 4일부터 친구들을 모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군부가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몇 친구는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흩어졌다. 그 후에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시위를 조직했고, 온라인에서 반군부 캠페인도 전개했다. 3월 27일에 파안에서 이른 아침에 시위를 조직하여 온라인에 중계하는 나름의 거사를 치렀는데 역시 군부의 탄압으로 정글로 도망쳐 그해 12월까지 그곳에서 지내다가 태국으로 넘어왔다.

타통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냈던 에이몬(여성) 역시 시위에 참여하다가 군부의 진압으로 정글로 도피했다. 여성이었지만 에이몬은 그곳에서 시민방위군의 일원으로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러다가 리더가 여성들의 전투 참여를 그리 두려하지 않아 타통으로 돌아와 시민불복종운동을 지하에서 지원하는 일을 했다. 다시 탄압이 거세지자 정글로 돌아와 활동하다가 IDP 캠프까지 오게 됐다. 그 캠프가 미얀마 군부의 공격에 노출되자 2021년 7월에 국경을 건너 매솟에 도달했다. 에이몬은 정글에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매솟에 넘어와 이주민 집거지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2025년 3월에 아이를 출산했다. 에이몬에게 정글은 앞 장에서 소개한 니토 발디비소(2017)가 다룬 콜

롬비아 여성 전사처럼 새로운 주체로서 거듭나게 하는 전이의 공간이었고 전우애와 사랑을 싹틔울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앞에 소개한 사람들이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다가 처음으로 매솿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몰라마잉 출신의 난텃(여성)에게 매솿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도시였다. 그녀의 부모가 매솿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몰라마잉에서 할머니의 돌봄 속에서 지내다가 방학 때면 매솿에 와서 부모님과 지내곤 했기 때문이다. 난텃에게 매솿은 ‘확장된 미얀마’, 이른바 ‘버미스 매솿(Burmese Mae Sot)’(Lee, 2018a: 109)이었다. 그럼에도 쿠데타 이후에 국경을 넘는 일은 당시 21세였던 난텃에게 꽃다운 청춘이 파괴되는 단절로 다가왔다. 이제 매솿은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지냈던 향수 어린 곳이 아니라, 파괴된 청춘을 회복해야 할 일상의 투쟁 공간이 되었다.

메이수, 나잉, 헤인, 아웅민, 에이몬, 난텃 등 미얀마 청춘 CDMer들은 모두 회고하기를 아웅산 수찌 정권 시절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으며,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보고 싶은 영화도 마음껏 보았으며, 먹고 싶은 음식도 풍족히 먹었다고 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유를 만끽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괜찮았어요.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무엇을 말해도 괜찮았어요. 정부에 대해 뭐라 하든 두렵지 않았어요 (아웅민).

미얀마에 있을 때는 새로운 영화가 나오자마자 보았어요. 예컨대 이번에 나온 슈퍼맨(2025년 7월 개봉)도 미얀마에 있었다면 바로 보았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매달 한번은 영화관에 갔어요. (...) 미얀마에 있을 때는 아침으로 따뜻한 찐 콩과 달걀 프라이를 먹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워요(헤인).

망명 생활 중에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결핍감과 과거에 대한 특유의 노스텔지어가 결합되어 그렇게 회고했을 수 있다. 그러나 감수성 높은 청(少)년 시기를 미얀마 민주화 시기에 보냈던 그 세대에게는 자유, 문화, 취향이 그들의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그야말로 육화된(embodied) 한 덩어리였다. 따라서 그러한 단어들

이 그 시절에 대한 회고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고 망명 활동가로서 현재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에서도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IV. 새로운 풍경, 새로운 운동

CDMer들은 동료 네트워크나 브로커를 통하여 매슷에 들어오게 된다. 일단 국경을 넘으면 동료나 브로커가 준비한 픽업차를 타고서 숙소에까지 이른다. 그들은 3~6개월 정도 안전가옥(safe house)에서 머문다. 쿠데타 이후 망명가들이 매슷으로 넘어오자 IOM(국제이주기구) 등 국제엔지오가 나서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주택 등을 렌트하여 이들에게 안전가옥이라는 이름의 숙소를 제공했다. 예전대 매슷 초입의 호텔과 로빈슨 쇼핑몰 주변의 콘도가 그 용도로 활용됐다. 그러나 안전가옥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낡고 스러져가는 가옥에서 여러 명이 오밀조밀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하튼 안전가옥에서 지내는 기간은 CDMer들에게는 본격적인 망명 생활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자신이 활동할 단체도 알아보고 이후에 지내게 될 숙소도 찾아본다.

메이수와 나잉은 민주화 운동을 조직하고 홍보하는 일을 주로 하는 스프링 네트워크(Spring Network)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고 여섯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 단체가 지원하는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헤인의 경우에는 의학 전공을 살려 매따오클리닉(Mae Tao Clinic)에서 헬스레이터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했으며, 미얀마에서 알던 친구 네 명과 함께 월세 3,000⁶짜리 집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안전가옥에서 지내던 중 그 친구들이 매슷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합치기로 한 것이었다. 아웅민은 경우에는 이주민학교(migrant school)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며 그 경내의 숙소에서 지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미얀마 내부의 정정 불안이 계속되자 사업가들과 부유층도 태국으로 넘어와 매슷, 치앙마이, 방콕 등에서 사업체를 열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⁶ 1밖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45원 정도이다.

사업가들 중에는 아웅산 수지 정권 아래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망명 인사도 있었다. 물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른바 경제이주민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망명가, 사업가, 경제이주민을 포함하여 매솿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의 인구가 쿠데타 이전에는 15만 명 정도였으나, 그 이후에는 25~40만 명으로 추정한다.⁷ 기존과 달리 쿠데타 이후에 이주한 사업가들과 부유층은 매솿과 치앙마이의 도시 풍경을 변화시켰다.

사실 매솿과 치앙마이 등 태국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추출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가 2010년대 이후에 간간이 생겨나다가 2020년대가 되면 급격히 증가했다.⁸ 역설적으로 쿠데타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켰다. 2026년 1월 현재 매솿에 120군데가량의 커피숍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⁹ 이 중 태국인을 주인으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얀마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다수 있다. 커피숍뿐만 아니라 미얀마 식당과 주점도 도시 곳곳에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로빈슨 쇼핑몰 건너편에 설립한 ‘메모리즈 오브 매솿(Memories of Mae Sot)’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일종의 야외 먹거리타운으로서 각양각색의 미얀마 음식과 음료를 취급한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CDMer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망명 생활을 시작한다. 아웅산 수지 정권 아래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정치가의 자제 등 이른바 많은 망명가들은 이러한 도시 분위기를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듯했고, CDMer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듯했다. 이것은 88세대에 게나, 쿠데타 이전에 이주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온갖 역경을 딛고서 겨우 자립에 이른 미얀마인에게나, 아직도 그러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미얀마인에게나, 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태국인 현지인과 엔지오 활동가에게나 너무 낮설고도, 때로는 알밋고, 어긋나게 보였다.

⁷ <https://www.facebook.com/MaeTaoClinic/posts/in-the-thaimyanmar-border-area-displaced-and-conflict-affected-populations-have-/1160334149639360/>(검색일: 2026. 1. 26.).

⁸ https://perfectdailygrind.com/2023/09/specialty-coffee-thailand/?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1. 26.).

⁹ 구글지도에서 ‘Mae Sot Coffee’로 검색한 결과다.

로빈슨 쇼핑몰 주변의 커피숍, 식당, 주점이 CDMer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역민과 기존 운동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태국인 현지인).

이전에 온 미얀마 이주민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매솏에 미얀마인이 살 수 있는 터를 닦았는데, 쿠데타 이후에 새롭게 넘어온 사람들은 자본을 갖고서 너무나 쉽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엔지오 활동가).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한편으로 민주화 10년 사이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증한다. 그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CDMer들의 소비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고, 미얀마에서 사업가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즉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미얀마는 연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¹⁰ 비즈니스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88세대도 고국으로 돌아와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사업가로 변신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다(Lee, 2018b). 2021년 쿠데타 이후 본국 사업 환경이 악화되자 그들이 태국으로 와서 투자를 한 것이다.

이른바 망명 사업가가 설립한 커피숍 등 사업체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예컨대 미얀마에서부터 커피 관련 사업을 했던 한 여성 사업가는 매솏에서 B 커피숍을 태국인 이름을 빌려 설립하고 시민방위군으로 활동했던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익의 일부를 민주화 활동 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이 커피숍은 활동가에게나 일반인에게나 담소를 나누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랑방이자 회복의 장소이기도 했다. 비즈니스와 정치적·사회적 운동이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쿠데타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필자가 면담한 CDMer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일상을 구축해나간다. 외부인에게는 즐기고 누리며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혁명 활동과 어긋나 보일지라도, CDMer 당사자 처지에서는 그것이 삶의 에너지일 수 있다. 서두에 소개한, “활동가에게도 만족, 취향, 행복이 중요해요”라는 메이수의 언급

¹⁰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9&locations=MM&start=2011&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1. 26.).

은 바로 그점을 드러낸다. 활동가들은 그 취향을 더욱더 계발하고 일상의 시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감성을 맞춘다. 난텃의 사례를 보자.

D 커피숍은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 건기에 잘 어울려요. 지금과 같은 우기 때는 이곳 H 커피숍이 좋아요. 코너처럼 들어간 곳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는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면서 회상에 젖기도 해요.

매솟에서 건기와 우기는 개인들에게 독특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건기 때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마시는 커피의 감성과 우기 때 추적추적 내리는 비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의 감성이 다르다. 난텃에게 커피 취향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감성의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자신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토대가 된다. 그렇게 충분히 자기만의 느낌과 세계에 젖어 든 후 활동가들은 다시금 기운을 얻고 망명의 나날과 혁명 활동을 이어나간다.

본인에게 즐거움이 일상에서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긍정한다. 필자가 CDMer들이 가라오케에서 노래도 부르고 즐기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메이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비난받을 일이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렇게 즐기는 것이 민주화 운동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의 쾌락 추구의 긍정은 이처럼 상대방의 쾌락 추구에 대한 긍정으로 연결된다. 앞서 다루었던 밀(2018)의 자유론적 사고, 즉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CDMer에게서 드러난다. 그리고 개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 정신의 약화로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취향과 쾌락 추구가 여성 CDMer에게서 두드러질 수 있고 특히 메이수와 같은 상류층 출신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질 수 있기는 하다. 그 출신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고급 커피숍이나 바에 가는 것을 당연한 습관처럼 여길 수도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별과 계급을 막론하고 일상에서 수행

해야 하는 의무와 분주함에서 거리를 두는 자신만의 시공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사례로 든 난텃이 상류층 출신은 아니지만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다움을 회복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남성인 아웅민 역시 커피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며 자신을 일상을 구축한다. 성별과 계급을 막론하고 그것 자체가 살아 있음에 대한 증명이자, 브라운의 책⁽²⁷¹⁾에서 언급한 대로 억압받는 사람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문화 향유는 집단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스펙터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21년에 제작되어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한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연기상까지 수상한 영화인 ‘What Happened to the Wolf’¹¹가 2025년 7월 19~20일에 로빈슨 쇼핑몰 내의 영화관에서 상영됐다.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진 일부가 쿠데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피신하거나 체포되어서 더욱더 주목받은 영화였다. 평소에 그 영화관은 관람객이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산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는 로빈슨 쇼핑몰 안팎이 미얀마 이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태국 경찰이 오히려 불법 이주민도 다수 섞인 그 인파를 호위해야 할 정도였다. 당시 경찰의 존재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영화는 이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무마시키는 스펙터클을 일으키며 그 누구든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냈다. CDMer를 비롯한 미얀마 이주민들은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며 집단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불안한 신분이지만 여기 이곳에서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효능감을 맛본다. 이것은 드 제노바(De Genova, 2013)가 언급한바, 국가가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여 만들어내는 스펙터클과 대조되는 사례로서 오히려 이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국가의 기능을 추방보다는 보호로 전환시키며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이라 할 수 있다.

¹¹ 이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What_Happened_to_the_Wolf%3F(검색일: 2026. 1. 17.). 한국에서도 2025년 8월 24일에 롯데시네마 부평에서 상영됐다. <https://letterboxd.com/film/what-happened-to-the-wolf/releases/>(검색일: 2026. 1. 7.).

V. 취향, 일상의 땀질, 그리고 공동체

문화 향유가 일으키는 스펙터클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 취향의 갑작스러운 파괴와 망명, 그리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감각과 감정, 정동의 흥분 상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라앉는다. CDMer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고 활동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들의 일상은 아무 일 없을 때가 많고 본국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혁명 활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되 권태와 지루함을 견뎌 나가는 일이 된다. 이제 긴 호흡으로 개인으로서, 동료로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며 ‘사회적 항해(social navigation)’를 해나가야 한다(Chambers and Saw, 2024; Horst and Grabska, 2015). 이러한 과정에서 취향은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망명 일상을 다시 이어붙이고 수선하는 ‘땀질(bricolage)’(레비-스트로스, 1996)의 실천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불법성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일상이 구축되지 않고 혁명 활동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 망명 생활 초기에 불법체류자인 이들이 제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주증이 일명 ‘폴리스 카드’라는 것이다. 비공식 거주증으로 미얀마인 브로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명함 크기의 종잇조각이다. 그 브로커가 CDMer로부터 매달 300~350밋씩 송금받아 경찰에게 상납한다(김희숙·박진영, 2024: 220-224; 전제성 외, 2023: 124). 메이수와 나잉은 경찰의 단속에 걸릴 때 이 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찰과 연결해 주면 넘어가곤 했다. 불법체류자를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중앙정부의 피상적 견해와 달리 지역 경찰로서는 이들의 불법성이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CDMer로서도 이것을 일종의 세금으로 치부하며 적어도 자국 경찰이나 군인과 달리 태국 경찰은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당분간 타협한다.

그러나 폴리스 카드로는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미얀마에 있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계에서 살았고 엘리트층에 속했던 CDMer로서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무엇보다 합법적 신분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를 충족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해인은 앞 장에서 소개한 대로 의과대에서 배웠던 지식을 갖고서 매따오클리닉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매달 1

만 맞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미얀마에서 의과대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피했기 때문에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망명정부인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온라인 강좌로 의대 과정을 이수했지만 공인 과정이 아니어서, 직접 진료 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 헤인은 앞으로 태국에서 지낼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매따오클리닉과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2024년에 미얀마 여권도 획득하고 취업허가증도 획득한다.¹² 다행히 헤인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서 여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동료들이 많았다. 그 합법적 거주증을 획득한 헤인은 방콕에 있는 마히돌대학교의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매따오클리닉에서 하는 일과 그 과정을 연결할 계획이고, 석사과정을 마치면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졸업 이후 헬스케어사이언스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생각이다. 이처럼 헤인은 망명 생활이 길어지자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여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전략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워 전문성을 키워나간다.

아웅민도 점점 합법화의 수준을 높여간다. 이주민학교에서 5개월 동안 환경과 젠더 이슈를 가르쳤던 그는 그 시절을 일종의 아름다운 감옥 생활이라고 했다. 불법 신분이어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는 카렌족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와 연락하여 매삭 시내로 나와 ‘핑크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것은 ‘토로(Tho Ro) 38/1’이라 불리는 카드의 색깔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서 기존에 미등록이었던 이주민들을 해당 지역에 등록시켜 그 지역에만 머물게 하는 임시 등록증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김희숙·박진영 2024: 206). 이 카드를 소지한 채 그는 임시 망명정부인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on Government, NUG)가 설립한 온라인 학교에서 가르치며 매달 2,000바트를 받았다. 이후 한 지역 엔지오(NGO)로 옮겨 수개월 일하다가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교육 관련 지역 엔지오로 옮겨서 일하며 매달 2만 바트를 월급으로 받고 있다. 소속 엔지오에서 합법적 신분을 얻는 절차를 지원해 주어서 취업허가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합법적 지위를 갖추자 아웅민은 직장에서나 현지인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현지인이나 경찰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¹² 합법적 신분 획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희숙·박진영(2024: 205-214) 참고.

헤인과 아웅민은 사례는 망명 생활이 길어지게 되자 취하는 CDMer들의 전략을 보여준다. 에이몬, 난넷, 메이수, 나잉 모두 초기에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점점 합법적 지위의 수준을 높여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주민 집결지에서 만난 미얀마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취업허가증과 여권을 만드는 데에 대개 브로커를 통하는데 보통 3만 밧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하루에 보통 200~300밧 정도 버는 이주노동자 처지에서는 막대한 비용이라서 아예 불법인 채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도 많다. 그러나 CDMer들은 상류층 출신이 많기에 여전히 본국 부모에게서 지원받거나 소속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CDMer들은 수입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어 혁명 활동을 지원한다. 싱글로서 부양의 의무가 없는 헤인, 동생과 부모를 챙겨야 하는 아웅민,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에이몬 등 형편과 사정을 막론하고 꾸준히 혁명 활동에 수입의 일부를 기부했다. 생활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매달 그렇게 기부하며 CDMer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망명 사업가들도 수익의 일부를 혁명 활동에 지원한다. 모금 정보와 방식 등은 ‘Click2donate’라는 페이스북 페이지¹³와 같은 데서 공유된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취향은 땀질과 같은 것, 즉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일상을 수선하고 조각들을 모아나가는 작업의 일환이 된다. 아웅민은 태국인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그 습성을 따라하게 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매일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커피를 마셔야 어수선한 일상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커피 마시기는 아웅민 자신의 세계를 정돈하고 가꾸어나가는 데뿐만 아니라 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일상 의례가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양말을 신지 않았는데, 여기에 살면서 슬리퍼를 신고도 양말을 신는 스타일을 몸에 익혔다. 태국 방식 따라하기는 굴종의 의미보다는 그렇게 어울리며 미얀마인으로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는 자신감의 표현이 된다.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소속 집단의 취향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다. 아웅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¹³ <https://www.facebook.com/click2donatemm/>(검색일: 2026. 1. 28.).

태국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태국인과 같아질 수 없으나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태국인들이 내가 미얀마인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얀마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요.

포스트식민주의 학자들은 흉내내기는 같아지는 것 같으나 결국 차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바바, 2002). 아웅민이 한 말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더 나아가는 바는 취향 따라하기가 주어진 위계체계에서 약자의 자신감의 표현이고 강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전술과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전사 출신 에이몬 역시 남편과 함께 그리고 태어난 아이(2025년 4월생)와 함께 이주민 집거지에 살면서 일상을 구축해 나간다. 이 집거지에는 형편이 어려운 CDMer들이 어울려 지내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에이몬 역시 아이돌봄 등 생활의 갖가지 필요를 여기에서 채운다. 이들에게 시내의 커피숍에 가는 일은 사치에 해당한다. 아직 미등록인 채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것이 더더욱 망설여진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캔커피도 35бат 정도 하기에 마시고 싶어도 돌아설 때가 많다. 대신 이들은 커피 파우더를 사서 집에서 마시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 으레 다른 CDMer들도 커피 마시기에 동참한다. 상류층 CDMer들의 커피숍 취향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들에게도 취향은 일상을 살아가는 에너지이자 공동체를 엮어내는 끈이다.

엘리트 CDMer에게도 취향과 쾌락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엮인다. 메이수와 나잉은 앞서 언급했듯이 스프링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네 명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메이수와 나잉을 포함하여 이들 여섯 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청소, 빨래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일을 분담했다. 여성은 2인 1실, 남성은 3인 1실을 원칙으로 방을 공유했다. 소속 단체에서 집세 1만 5,000bat을 지원하고, 각자 1,000bat씩 총 6,000bat을 거두어 식료품을 사고 기타 공동생활 경비에 썼다. 이렇게 생활을 함께하며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를 돌보고 재활을 돕는 일을 주된 혁명 활동으로 해나간다. 때마오클리닉 등 치료 기관과 연락하여 환자가 적시적소에 치료받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또

한 미얀마 정세를 비롯해 태국-캄보디아 분쟁과 같은 주변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 공동체이자 혁명 공동체인 셈이다.

메이수에게 공동체 생활은 그 쾌락 추구의 차원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자신의 취향 중시는 상대의 취향 중시로 이어지며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하는 즐거움의 추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음식 취향에 대한 메이수의 말을 들어보자.

일주일에 이틀씩 돌아가며 아침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취향에 맞추어서 음식을 해요. 저는 인도계라서 마살라 커리를 좋아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제 순번이 됐을 때 저에게 맞는 음식을 준비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것도 준비해요. 제가 잘하는 것을 하되 남의 취향도 존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선 장에서 팩터(1971)가 비판했던 뉴레프트 운동의 자기자신만을 위한 진정성(authenticity) 추구로만 나아가지 않고 타인의 취향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면서 갈등을 겪을 때도 물론 있다. 메이수와 나잉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살면서 자기도 실수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실수하고, 모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취향에 맞추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나갔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 중에 모난 부분은 다듬어지기도 한다. 나잉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원래 내 물건에 누군가 손을 대면 못 참는 까탈스러운 성격이었어요. 제 어린 조카가 제 책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책을 찢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찢어진 책을 그냥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처럼 쿠데타 이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청년 CDMer들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삶을 살고 혁명 활동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침해받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 이러한 성숙은 인생 주기의

변화에도 맞물린다.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망명이 일상이 된 사회적 항해를 해나가는 사이에 어느덧 서른 즈음에 이르게 됐다. 이 시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과 그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메이수는 자기 방을 양곤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예쁘게 꾸몄다. 그런 작업이 앞에서 아웅민 사례에서처럼 메이수에게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땀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땀질은 기쁨의 공동체로 향한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 여섯 명의 CDMer들은 매일 한두 시간씩 어울려 보드게임을 한다. 놀이와 즐거움은 혁명 활동과 분리된 사적 여가가 아니라, 장기화된 망명 생활 속에서 활동가들의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지속시키는 실천으로 기능한다.

때론 취향은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맥락에서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죄책감의 정서를 자아내기도 한다. 난탯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가끔 팬시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비 오는 풍경을 보며 커피를 음미하면서 그 한적하고,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상에 젖는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감정에 휩싸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 문득 죄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글에서 싸우며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평화롭게 한가히 카페에서 커피를 즐겨도 되는가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미얀마 청춘 CDMer에게 한 잔의 커피는 인생의 달콤한 맛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쓰디쓴 맛을 느끼게도 한다. 이처럼 취향은 즐거움과 기쁨의 자극제이면서도 정치와 혁명의 각성제이기도 하다. 결국 청춘 CDMer에게 쾌락 추구는 개인과 공동체, 삶과 죽음이 관통하는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태국 매솿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는 미얀마 청년 시민불복종운동

참여자(CDMer)를 사례로, 쿠데타 이후 민주화 운동을 고통과 희생의 서사로만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에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활동가에게도 만족, 취향, 행복이 중요하다”는 메이수의 호소는 혁명의 대의를 약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CDMer들에게 취향과 쾌락은 단순한 사적 소비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망명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일상을 수선하고 정동을 조율하며, 혁명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쿠데타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 시기에 체화되었던 자유·문화·취향의 감각 세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 CDMer들에게 혁명은 단지 거리의 투쟁이나 지하 활동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마주한 산맥의 풍경, 그곳에서 먹었던 따뜻한 컵라면의 맛, 영화와 음악, 커피와 같은 미시적 감각들은 고통 중심의 내러티브로는 포착되지 않는 정동의 충위를 드러낸다. 이러한 감각과 기억은 망명 이후의 삶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실마리가 되었고, 활동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구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스티븐 그린블랫(2013)이 말한 ‘비틀림(swerve)’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CDMer들이 말하는 “커피를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혁명의 대의를 거부하는 단절이 아니라, 투쟁의 감각과 리듬을 미세하게 전환하는 비틀림이다. 이는 혁명을 탈정치화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기쁨을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틀림은 개인의 감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망명 도시의 풍경 속에서 가시화된다. 쿠데타 이후 매솟의 커피숍, 식당, 주점, 영화관 등과 같은 도시 공간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망명가와 활동가, 사업가와 이주노동자가 뒤섞이는 새로운 정치적 장이 되었다. 이곳에서 CDMer들은 회복의 시간을 갖는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혁명 활동을 조직한다. 외부의 시선에서 이러한 풍경은 ‘즐기며 운동하는 모습’으로 오독되기 쉽지만,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망명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생활의 기술이었다.

특히 망명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은 비즈니스와 정치, 회복과 연대가 중

첩되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 공간들은 고용과 기부, 모금과 담소를 매개로 혁명 활동과 일상을 연결하며, 기존의 투쟁 공간과는 다른 형태의 운동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풍경은 88세대가 경험했던 금욕적이고 희생 중심의 운동 문화나, 생존에 급급했던 기존 이주노동자의 삶과도 긴장을 형성한다. 이 긴장은 민주화 10년 동안 미얀마 사회에서 축적된 취향과 감수성이 국경을 넘어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밀(2018)의 자유론적 사유는 다시 한번 환기된다. CDMer들이 자신의 취향과 일상을 지키려는 태도는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개별성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실천이었다. 동시에 로드(1978)와 브라운(2019)이 말한 쾌락의 정치성은, 이러한 도시적 풍경 속에서 집단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커피숍과 영화관 등의 공간은 단순한 위안처가 아니라, 쾌락이 저항의 리듬으로 재배치되는 장이 된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쾌락과 취향의 실천을 무조건적으로 낭만화하지 않는다. 난택이 느끼는 죄책감은 쾌락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정동의 신호이다. 이는 팩터(1970)가 경고했던 진정성 담론의 위험을 환기시키며, 쾌락이 공동체적 윤리와 결합될 때에만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본국의 민주주의 복귀가 지연되자 CDMer는 합법성을 획득하며 일상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항해를 해나간다. 이들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취향 실천은 일종의 땀질과 같은 작업이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 계절에 따라 공간을 선택하는 감각, 방을 꾸미는 행위 등은 주어진 구조와 조건 속에서 조각들을 이어 붙이며 일상을 수선해 나가며 생활인이자 활동가로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술이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쾌락이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와 공동체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자신의 취향을 긍정하는 태도는 곧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졌고, 공동생활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윤리로 확장되었다. 메이수와 나잉이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공간을 공유하는 태도, 놀이를 함께하는 시간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상의 정치였다. 이는 쾌락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진정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계급, 성별, 합법적 지위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치된다. 일부는 팬시한 소비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집거지에서 파우더 커피를 나누며 일상을 이어간다. 그럼에도 취향은 형태를 달리할 뿐, 성별과 계급을 가로질러 망명 생활을 견디게 하는 에너지이자 공동체를 묶는 매개로 작동한다. 나아가 문화 향유가 만들어내는 집단적 스펙터클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일시적으로 비틀며, 추방의 논리가 아닌 보호와 공존의 장면을 출현시킨다.

이러한 분석은 민주화 운동과 사회운동 연구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이 혁명의 지속성을 희생, 헌신, 이념, 조직화의 차원에서 주로 설명해왔다면, 본 연구는 감각적 삶과 취향, 기쁨의 실천 또한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혁명은 단지 고통과 분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의 감각과 일상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적 즐거움의 리듬 속에서도 지속된다. 또한 본 연구는 망명자를 단순한 피해자나 불안정한 존재로 환원하기보다, 취향과 정동, 공간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삶과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국 미얀마 청년 CDMer에게 쾌락과 취향은 혁명과 대립하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혁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이다. 그것은 망명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파괴된 삶을 수선하는 땀의 실천이자, 개인의 회복을 공동체적 윤리와 연결하는 정동의 기술이다. 이 글은 그러한 감각과 리듬을 따라가며, 혁명을 고통의 서사로만 환원하지 않고, 살아 있음의 기쁨과 취향, 그리고 일상의 정치 속에서 다시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투고일: 2026년 2월 3일 | 심사일: 2026년 6월 20일 | 게재확정일: 2026년 7월 31일

참고문헌

- 그린블랫, 스티븐. 2013.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이해원 옮김. 서울: 까치.
- 김희숙·박진영. 2024. “난민과 이주노동자 사이: 태국 국경도시 매솟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이주민의 삶.” 김희숙·나현필·박진영·이유경·Ko Maung·Ma Cheria·Myo

- Hein 편. 『미얀마 위기의 안과 밖: 3년의 여정을 돌아보다』. 178-245. 괴산: 도서출판 정한책방.
-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1996.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서울: 한길사.
- 루크레티우스, 티투스. 2012.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옮김. 서울: 아카넷.
- 밀, 존 스튜어트. 2018. 『자유론』. 서병훈 옮김. 서울: 책세상.
- 바바, 호미.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옮김. 서울: 소명출판.
- 아렌트, 한나.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옮김. 파주: 한길사.
- 오웰, 조지. 2001. 『카탈로니아 찬가』. 정영목 옮김. 서울: 민음사.
- 이은정. 2022. “유연한 방식의 ‘봄의 혁명’: 국내 미얀마 출신 유학생의 초국적 정치 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22(4): 83-126.
- . 2024. “미얀마 유학생의 초국적 고국 정치 참여: 2021년 쿠데타 이후 한국 내 미얀마 유학생의 정치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4(4): 87-129.
- 전제성·김정현·김희숙·이상국·이진영·부경환. 2023.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 지원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쿤데라, 밀란. 2018.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재룡 옮김. 서울: 민음사.
- 헤밍웨이, 어니스트. 2012.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파주: 열린책들.
- Amporn Jirattikorn. 2023. “Forced into Exile: The Untold Journeys of Myanmar’s CDM Teachers.” *Anthropology Today* 39(1): 23-27.
- Berman, Marshall. 1970. *The Politics of Authenticity: Radical Individualism and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 New York: Atheneum Press.
- Brown, Adrienne Maree. 2019. *Pleasure Activism: The Politics of Feeling Good*. Chicago: AK Press.
- Chambers, Justine and Saw Ner Dhu Da. 2024. “‘Living With’ Revolution: The Everyday Experiences of Myanmar’s Generation Z Revolutionari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54(5): 781-800.
- De Genova, Nicholas. 2013. “Spectacles of Migrant ‘Illegality’: The Scene of Exclusion, the Obscene of Inclus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36(7): 1180-1198.
- Gilman-Opalsky, Richard. 2012. “Beyond the Old Virtue of Struggle: Autonomy, Talent, and Revolutionary Theory.” *Rhizomes* 24: 1-14.
- Horst, Cindy and Katarzyna Grabska. 2015. “Introduction: Flight and Exile: Uncertainty in the Context of Conflict-Induced Displacement.” *Social*

Analysis 59(1): 1-18.

Jordt, Ingrid, Tharaphi Than, and Sue Ye Lin. 2021. "How Generation Z Galvanized a Revolutionary Movement against Myanmar's 2021 Military Coup." *Trends in Southeast Asia Series* Issue 7.

Lee, Sang Kook. 2018a. "Ghettos or Transnational Social Spaces? Burmese Migrant Enclaves in the Thailand-Myanmar Borderland." 『비교문화연구』 24(1): 99-138.

———. 2018b. "The State, Ethnic Community, and Refugee Resettlement in Japa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3(8): 1219-1234.

Lorde, Audre. 1978. "Uses of the Erotic: The Erotic as Power." Paper Delivered at the Fourth Berkshire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Women, Mount Holyoke College, August 25, 1978.

Marlar, Justine Chambers and Elena. 2023. "Our Htamein, Our Flag, Our Victory: The Role of Young Women in Myanmar's Spring Revolution." *The Journal of Burma Studies* 27(1): 65-99.

Nieto-Valdivieso, Yoana Fernanda. 2017. "The Joy of the Militancy: Happiness and the Pursuit of Revolutionary Struggle." *Journal of Gender Studies* 26(1): 78-90.

Pachter, Henry M. 1971. "A Philosophy for the New Left." *Salmagundi* 17: 114-124.

1차 자료

장선우. 1996. <꽃잎>. 영화.

La Pompe-Moore, Giselle. 2025. "Pleasure is Needed for a Revolution." *Be Difficult, Darling* (Weekly Newsletter). <https://gisellelpm.substack.com/p/pleasure-is-needed-for-a-revolution> (검색일: 2026. 1. 22.).

Perel, Esther. 2019. "The Erotic is an Antidote to Death." <https://onbeing.org/programs/esther-perel-the-erotic-is-an-antidote-to-death/> (검색일: 2026. 1. 23.).

Popova, Maria. 2023. "Uses of the Erotic: Audre Lor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ros, Creativity, and Power." *The Marginalian*. <https://www.themarginalian.org/2023/08/18/USES-OF-THE-EROTIC-AUDRE-LORDE/> (검색일: 2026. 1. 23.).

Abstract

Pleasure and Revolution: Taste and Political Activism among Young Myanmar Activists

Sang Koo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tendency to understand the post-coup pro-democracy movement solely through a narrative of suffering and sacrifice by focusing on young Myanmar participants in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ers) living in exile in Mae Sot, a Thai border city. The coup not only deprived them of political rights but also shattered the sensory world of freedom, culture, and taste that had arisen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the process of exile and subsequent settlement, taste functions not as mere consumption or escapism but as a life technique that regulates affect, “patches together” everyday life, and sustains revolutionary engagement. The practice of taste extends beyond personal recovery to an ethic of respecting others’ preferences and to forms of communal mutual care, while also intersecting with revolutionary support through donations, employment, and fundraising. For CDMers, pleasure and taste do not stand in opposition to revolution; rather, they constitute an everyday foundation that maintains the rhythm of revolutionary life at the intersection where life and politics converge under the instability of exile.

Keywords | Myanmar, 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 Exile, Mae Sot, Taste, Pleasure, Affect, Everyday life, Bricolage, Community

